東大新聞

石元 斗大 鄭康 幹

發行人 編輯人 印刷人 兼主

發行所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社團法人 東大新聞社 電話②1685 1686 8611

(每週金曜日發行) 月分·200원

言 今週 오늘의 惡德은 來日에 德이 될는지 도 모른다. —(피일딩)—

活潑해진 서어클 活動

研究室도 各各마련하고

學術討論會、研究發表등으로 眞摯한 움직임

都合十個크럽으로結束

學問의 보다 體系的인 研究를 뜻있는 學友들과 어울려 展開하자는 서어클活動이 今學期 初부터 期末에 이르는 동안에 한층 盛況을 이루고있다。專攻學科 學友들이 十餘名씩 뭉쳐 研究室을 마련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敎授의 指導아래 머위도 있고 研究에餘念이 없는 써클은 모두 十個에달한다。이미 創立된 서어클로 九月에는 오한데 어울려 高試準備에 결친 討論會와 敎授의 特講등을 갖는등 活潑하게 研究를 하고 있는데 現在 會員은 32名이며 所要經費는 호주머니를 털어 충당하고 있다。

또한 石造舘三層에 研究室을 마련하고 「經營管理研究會」는 62年七月에發足 以來 企業體의 人事管理實態와 販賣管理實態調査를 實施하여 經營學界에 이바지한바 있으며 夏季放學中에도 生産管理實態調査를 豫定으로 農經科生 18名이 主動이 되 「農業經濟研究會」는 지난十日 石造舘二層研究室에서 發足했으며 「計理士準備會」는 22日에 創立總會를 갖고 해마다 計理士試驗에 首位를 차지해온 傳統을 계속維持하기 위하여 努力하고있다。

法學系서어클

여섯동을맞는 「法雄台」 크럽과 昨年十月에 發足하여 高試準備에 분망한 「東國法窓會」가 있는데 法雄台에는 現在 20名의 法學徒들이 大學院 假校舍에서 研究에 힘쓰고있으며 그간 百五十名에 達하는 學生들이 宿食을 같이하면서 이곳을 거쳐나갔다。法雄台出身가운데는 昨年度 高等考試行政科 三部에 合格한 金永秋(法四)君과 同一 15名이나 次合格者만도 된다고 한다。

한편 「東國法窓會」는 本舘二層에 研究室을마련하고 一名의 高試合格者와 一次合格者 30名 其他 30名의 在學生들이 한데 어울려 高試準備에 暢雲 분망하다。이들은鄭 韓相範先生등을指導敎授로 모시고 會長 安柄敦 副會長 趙正坤 同門등과 함께 每週一回씩의 討論會등도 갖고 있다。

經濟學系서어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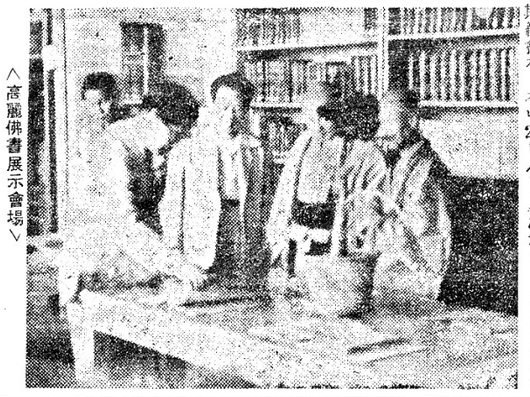
經濟學研究會」 「農業經濟研究會」 「經營管理研究會」 「國際問題研究會」 「經濟學研究會」 「東國法窓會」 「農業經濟研究會」 「計理士準備會」 등으로 그들의 政治學研究會」 「計理士準備會」 등으로 그들의 研究內容과 方向을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政治學系서어클

엔지난 五月에發足한 「國際問題研究會」와 六月에 創立을본 「政治學研究會」가 있는데 「國際問題研究會」는 外交行政高試에合格者 金永秋(法四)君等 二〇名의 회원으로 國際情勢와 先進國의 政策을 研究分析하여 韓國에 後進性 脫皮를 모색하는한편 實力培養을爲하여 時事英語特講도 現在하고있다 지난十五日에發足한 「政治學研究會」는 舊圖書館서리에 研究室을마련하고 申基珍 金鎭福 李鍾麟 洪淳鉉敎授의指導로 政治·經濟·社會等 政治全般에걸친 研究에 沒頭하고있는데 兪光晟(政四) 金仁奎(政四) 金文煥(政四) 君等을 主멤버로한 二〇名의 會員이있다

文學系서어클

昨年 文學會、創作文學會、文學研究會等 各文學서어클을合하여 本校 唯一의 文學會로 發足을본 「東國文學會」는 文壇의요람이되어있다詩 小說分科 分科委員會와 小說分科委員會 評論分科委員會 戲曲分科委員會等 산하 四個分科委員會를두고있는 文學會는 各分科別로作品 合評會를 해오고있으며 本校 創立以來 가장큰 文學行事인 第一回 「東國文學祭」를 開催하여 多大한 成果를올린바있다 그外에도 講演會및 마련하고있으며 特講等을 現在 지난十五日 文學會 主催로 「現代文學의 形式」을 말한것이다。經典의 文章이 主로 散文體로 되었음을 長行이라하고 詩體로 된 頌과 區別하고있다。그러나 어떤經에는 散文體인 長行으로 叙述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詩體인 頌으로 要約해서 거듭 說하고있다。이것을 重頌이라한다。그러나어 이와같은 九種의形式은 小乘經典에서만볼 수있는것이며 大乘經典과 區別지는 特徵이기도한것이다。그러나 大乘經典은 以上 九種에 授記와 自說과 方廣의 세가지가 添加되어있다。授記라는것은 證明한다는뜻으로 부처님께서 弟子들에게對해서 반드시 뒤에 成佛해서 法明如來 또는 普明如來等이 된다고證明한것을 말하는 것이며 自說이라는것은부처님께서 다른사람들에 묻기前에 스스로 말씀하신 無問自說經의 形式이다。方廣이라는것은 方等이라고도하며 大乘의 敎理가 廣大하고 哲學的으로 깊고 玄妙하고 組織體系의 規模가넓고 진말이다。모두 大乘經典의 特徵이되어있는것이다。量이많고內容이 어렵다고 하는 大藏經도 이와같이形式的으로 文章을分類해보면 월신 理解하기쉽게되는것이다。近者우리나라에서는 海印寺 高麗大藏經을影印해서 保存 普及에 힘쓰고있으나 最近高麗大藏經印經委員會가 組織되어 가을부터는 이를 印經해서 民族文化의 精華를 세계에 다시 빛나게한다 하니 그意義가자못깊다하겠다。


<高麗佛書展示會場>

研究·保存등에貢獻

高麗本佛書展盛況

第二回「韓國大藏會」가 高麗本 佛書展示會」를 八百餘年前에 刊行된 「金剛般若經疏論纂要助顯錄」等 二七번 展示會에 이어 23日부터 佛敎文化研究所에서 開催되었다。

本館二層에 研究室을마련하고 一名의 高試合格者와 一次合格者 30名이 一堂에 모여 佛敎思想認識을 두텁게 하였으며 書誌學研究家들에게 많은 도움을주었다。展示會는 初日부터 佛敎信徒들을 비롯한各界人士、各大學의 圖書館學科生과 史學科生들로 盛況을 이루었다

母校發展에 寄與

同窓會定期總會……몇개 建議도

<高麗佛書展示會場>

本校同窓會 定期總會가 지난 23日(日) 午前十時 中講堂에서 開催되었다 二三六名의 會員이 參席한 强行 百餘名의 會員은 同會의 보다 實施할豫 建議事項을 비롯한 五個項目에 대하여 同會의 獎學基金 補强、同窓會館設置、母校 支部의 設置等 各의 同窓會 發展에 劉한 決議하였다 原則을 同窓會側 紛糾에 對하여 同窓會 이러고 學校를 議 보다積極的으로 그 수습에 關與하기로하고 具體的인 方針은 理事會 에 委任했다 또한 其他 學校備品購入에 대하여 協力하기로하고 三 時頃 閉會 이어構內 食堂에서 칵텔파티를베풀었다

이날總會에서 새로 選出된 監事三名은다음과 같다

▲崔鶴璨 ▲黃龍浩 ▲李泰根

十日까지短縮實施

學期末試驗

敎務課、一部時間表를變更

<들기同門科敎佛 의 談會中>

敎務課에서는 七月十二日까지 實施할豫定이던 學期末考査를文敎部의 緊急指示에의하여 七月十日까지 短縮實施하게 되었다고 發表했다 短縮은 米日(八日)五敎時分、二日(月)六敎時에、二十二日(土)三敎時分을 試驗完了할수있도록 更變했다 變更된 一部試驗時間表를 十日(木)一敎時分、十一日(金)四敎時分、十二日(土)六敎時分으로 各各實施할 것이라고 하는데 講義室 發表된것에 變動이 없다고한다

趙在浩君一等

漠擬亞阿外相會議

佛大 趙在浩(佛三)君은 지난六月二十二日 全南大招請 모의亞·阿外相會議에 參席하여 一等을 차지하였다

任員11名도選出

佛敎科同窓會創立

敎復以後 佛敎科同窓會 創立總會가 지난二十二日 午前十一時三十分 小劇場에서 多數 佛敎學科 同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三歸依禮로 始作된이날의 總會에서는 臨時議長 金鎭會 司會로 五 逆하는 會 報告에 이어 申炳龜同門의 經過 報告 章二十二條에 대한 審議、全面 通過시켰다 그리고 總會에서는 「佛敎運動의 모색」등諸 問題를 새로 選出된 理事會에 委任하는 한편 十一名의 任員選擧도 하였는데 任員은 다음과 같다

▲會長=申炳龜 ▲副會長=黃淵甲 ▲理事=宣晋圭李憲鍾 裵鍾一 李光雨 朴慶浩 朴完一 ▲總務幹事=金仁德 ▲財政幹事=金英基 ▲事業幹事=睦禎培

새方向을摸索

佛敎科同窓會 懇談會도盛了

佛敎科同窓會 創立을 본 22日 佛敎運動의 새方向摸索을 爲한 懇談會를 開催하였다 午後 二時부터 敎授室에서 本舘 四層 張佛 大學長、金事務局長을비롯한 佛大敎授들과 外 同門等 六〇名의 餘名 人士 參席한 이날懇談會에서는 佛敎의現代化、大衆化、實踐化를위한 佛敎運動의 새 方向을 論題로 懇談會를 開催하여 佛敎運動의새 길을 찾았다 五時 三〇分에 끝난이날 懇談會는 現代 宗敎人의 基本目標인 人格完成과思想을確立하여 못衆生을 濟度할것을 다짐하였다

金善興君에게

發表最優秀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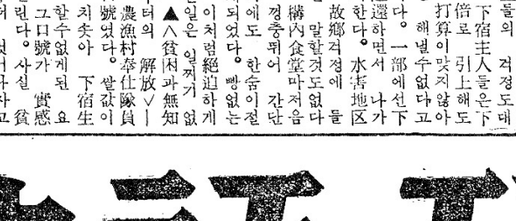
東亞大法律學討論會서

釜山 東亞大가 主催한 「全國男女大學生法律學領討論大會」에서 本校 金善興(法三)君이 發表部最優秀賞을 獲得하였다。

이날 討論會에는 金君外에 金雲哲(法·四) 崔相徹(法·三) 吳成泳(〃)君等이 參席했었다。

그날의慘狀되새겨

「6·25」맞아中講堂서紀念式


<中講堂에서 거행된 紀念式>

民族的 受難의날 이 시작되었던 六月의颱風 「셜리」號가 南 二五萬 乱十三周 年을맞이 한 本校에서는 그날을 想起하고 反共思想을 굳건히하는 紀念式 25日 上午9時 鄭總長을 비롯한 校職員과 全 校生이 參 席한가운데 거행되었다

崔學生課長의 開式辭로 始作된 式은 國民儀禮에이어 戰歿將兵에 對한 默念、金事務局長의 革命公約朗讀이있은 다음 鄭斗石總長의 記念辭가있었는데 鄭總長은 同記念辭에서 「그날의 慘狀을 想起」하여 굳건한 反共理念을 확립해야한다고 强調한다음 「解放以後 오늘날까지 統一을 못이루고있는것은 우리自身의힘이 모자라기때문이므로 正義에서는 우리大學生은 民族과 國家를 爲해서 먼저 새로운覺悟를 갖춰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反射鏡

食糧걱정으로 주름

요즘 잡히게줌 된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밥」을 打算이 맞지않아 해결할수없다고 아우성이다。一部에선 宿費를返還하면서 나가라고까지한다。水害地區 學生이 故鄕걱정에 들뜨는것은 말할것도없다 構內食堂마저음식값이 경중뛰어 간단한 요기에도 한숨이절로 나게되었다。빵없는 自由가 이처럼絶迫하게 危脅해온일은 일찌기 없었다。

▲八貧困과無知 ▲解放八—부터의 農漁村奉仕隊員들의 口號였다。쌀값이 싸서 下宿生 활수없게 된 지금엔 그口號가 實感 나게 들린다。사실 貧困으로부터 벗어나자고 한때 自己는 조금나은 立場에있거나 생각해왔었다。그래서 農漁村에 가도 勞力이나 技術敎化에 그치는 일이 많았다。이제事態는 江 진너물이 아니라 내집 걸음을痛感한다。下宿집에서마저차마 있을수없게된것도 그하나이다。

▲「아시아의 마지막밤 風景」이란空超의詩가운데이런句節이생각난다。「아시아는 밤이支配한다。그리고 밤을다스린다」「밤은 아시아의食慾이다。아시아의 몸은 밤을먹고 자라난다」

우리에겐 밤과 같은 絶望의 秩序가 풀리지않고있다 絶望속에서 絶望을먹고 살아와야 반했었을가。

▲우리의 꿈은、먼데있으면서 現實에 쫓기는 실상은 먼데있으면서 살아야한다。아카데미즘이 現實逃避여서는 안되겠다는것도 여러번 겪었다。學問을 위한 學問이 아니라 人間을 위한 學問、生活을위한 學問、나아가선 現實打開를위한 學問이어야하겠다。一切의知識을 活을創造하는 知性으로 보고 道具로 보게되는 道具主義哲學이 우리에게도아쉬어진다。

時事英語研究

7月号

값 50원

時事英語社 發行

ARTICLE

WHAT IS HISTORY?
By Arthur Schlesinger, Jr.
'historian도 현실적인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Kennedy special adviser의 主張

EROTICISM SEX AND LOVE
By J. B. Priestley
Sexual intercourse는 psychological relation이라고 英國作家는 論하고 있다.

MOSCOW WANTS MY MONEY
By Bob Hope
American Comedian의 쏘련여행기

漢內論說 英文對譯 「自己接近과 獨立精神」
By Hong Chong In

STUDY SERIES

高級英作文講座……閔 泳 斌
Idiom 敎室……鄭 明 鎭
經濟英語演習……金 承 萬
實用英作文講座……安 鎭 三
時事英語演習……梁 璨 圭
商業英語講座……金 行 權
Slang 研究……羅 建 碩
時事第二外國語講座(獨語·佛語)

各校關係 第二外國語試驗問題解說
海外留學生 選拔試驗, 東亞出版社 入社試驗

해외는 英語부터
Mass Communication 篇 朴 權 相

MONTHLY REVIEW(放送講座 Text)

JUNGLE DOCTOR GO HOME
By Norman Cousins
Albert Schweitzer 故國에 돌아가라.

RUSSIA'S PLANS FOR THE WAR
By Max S. Johnson

Will U.S. Foreign Aid End?
Clay 장군과의 會見記

Foreign Topics
EDUCATION 政治에 휘말린 南美의 大學
CINEMA L'Eclipse(太陽은 외로워)
BOOK REVIEW The Ordeal of Power

映畫英詞英會話研究
Boccaccio '70

現代英米短篇選
떨어지지 않는 손
by Graham Greene

社說

縱的紐帶强化로 母校愛를 더욱 높혀야

—同窓會定期總會를 보고—

同窓會定期總會가 지난23日 豫定대로 母校中講堂에서 開催되었다。學年初에 召集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여러가지 事情으로 이제 열린것이다。이날모인 同門들은 不過 二百名內外였지만 始終眞摯하게 幹部陣이 處理해온 일들을 따지고 向後母校를위한 同窓會의 姿勢를 새롭게 다짐하였다。이른바 앞서고 뒤따르는 先後輩가 격의없이 母校의 發展을 위하여 胸襟을 털어놓을 수 있는 機會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總會에서 主要問題가 되었던 것을 추려보면 總會에 내놓은 準備物의不備、監事의不參、幹部陣의 突然한 辭意表明等으로 要略할수 있었다。

同窓會幹部들이 一個年餘의 任期를 앞두고 辭意를表示한 理由에는 人的强化策의 一環이 되었다。보다有能하고强力한 일꾼들을 들고 있었다。보다有能하고强力한 일꾼들이 分明하다 너무나 漠然한 理由였음을 알만한 着眼이었다고 본다。흔히 是非만을 일삼고 어떻든간에 一年間의功過에대하여 虛心坦懷하게 信任을 물었던것은 會員의 是是非非的立場에 餘裕를 준것만은 事實이다 그러나 總會는 이날不參한 監事三名만의 補選만으로도 充分하다고하여 일단락을지었다。同窓會幹部들이 그들의進退에關하여 이처럼 民主的이고도 紳士的인 決議를 가진것은 向後의發展을위하여 떳떳한일이었고 좋은前例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事業報告가운데서 注目되는 것은 在學生의 勉學熱鼓吹를위한 奬學制度의設置는 他의奬例가 드문것으로 同系의 東女會奬學制度와함께 높이 살만한着眼이었다고 본다。흔히 是非만을 일삼고 트치기쉬웠던것이 最近의 韓國的生態인을 想起할 때 本校同窓會幹部陣은 퍽 意慾的이다。

그러나 몇몇幹部들만의 獻身으로는 무리한 規模있는 事業計劃이라도 그 推進이 許多한 難點이있다。이러한前提아래 다음 몇가지 平素의 所信을 밝히고자한다。

첫째 同窓會는全體會員의紐帶와團合의길을 摸索해야되겠다는것이다。이것은 너무나 橫的인 聯關보다 縱的인 紐帶가 强調되는 것이다。

中央學林으로부터 惠化專門에 이르는同門들은 事實上 縱會의 參席率부터가 아니어서 縱的인 相互親睦은 隔阻해진 지 不少하기 때문이다。四十餘年前 先輩로부터 一堂에 모여 交驩하는 機會가 없는 形便이다。

그래서 市內나 各支部에도 이렇다할만한 連絡事務室하나 없는 形便이다。

사실 同窓會事務室은 校內에 있기커녕 校外에 있는것이 正常이다。보다는 때문이다。

그리고 會員들의 會費納付率이 低調하여 제대로 推進하기 어려운 現狀의 一要因도 亦是 組織網의 强化로 보아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會則의 改正에도 있겠지만 理事陣의 人選에도 考慮된수 있다고 하겠다。

둘째 事業計劃은 보다 具體的으로 세워서 財源確保가 되도록 해야하겠다는 것이다。지금까지는 主로 入會金과 若干의 會費에만 財源을 依存해왔던것이 事實이다。그래서 市內나 各支部에도 이렇다할만한 連絡事務室하나 없는 形便이다。

사실 同窓會事務室은 校內에 있기커녕 校外에 있는것이 正常이다。보다는 때문이다。

그리고 會員들의 會費納付率이 低調하여 제대로 推進하기 어려운 現狀의 一要因도 亦是 指摘하지 않을수 없다。이는 亦是 組織網의 强化로 보아야 할것이다。

셋째 事業計劃은 總會開催時에 전혀 委任事項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問題도 檢討되어야 할 性質로 본다。

如何튼 現同窓會가 每年 定期總會를열어 相互親睦과 熱誠은 前例없는 일이다。

자주 接觸하는 가운데 善意의 問題는 提起되고 推進力도 생기는 것이다。그리고 先輩에 대한 尊敬이나 後輩에의 사랑도 싹트는것이 事理이다。先後輩 和同의 廣場에서만 大學의 名譽와 權威는 加一層 높혀지는 때문이다。앞으로 이러한 契機를 자주 마련하여 所期의 目的遂行에 拍車를 加함으로써 母校發展에 더욱 빛나는 자욱을 남겨 줄것으로 믿는다。

印度의 佛蹟

<난간에 있는 大學址>

<考筆中의 踏査踏蹟佛教遺印度>

難困査踏인 知識없

考古學 美術史

那爛陀는 先人들의 자취가 뚜렷한 곳

永壽 黃

<上>……李乘東

資本制下의農業

<一週一言>

學園의 秩序

金基洙

國民經濟와 政府의 地位

—歷史的 變遷에 對한 考察—

慎斗範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一百一>

<一百二>

<一百三>

<一百四>

<一百五>

<一百六>

<一百七>

<一百八>

<一百九>

<二百>

<二百一>

<二百二>

<二百三>

<二百四>

<二百五>

<二百六>

<二百七>

<二百八>

<二百九>

<三百>

<三百一>

<三百二>

<三百三>

<三百四>

<三百五>

<三百六>

<三百七>

<三百八>

<三百九>

<四百>

<四百一>

<四百二>

<四百三>

<四百四>

<四百五>

<四百六>

<四百七>

<四百八>

<四百九>

<五百>

<五百一>

<五百二>

<五百三>

<五百四>

<五百五>

<五百六>

<五百七>

<五百八>

<五百九>

<六百>

<六百一>

<六百二>

<六百三>

<六百四>

<六百五>

<六百六>

<六百七>

<六百八>

<六百九>

<七百>

<七百一>

<七百二>

<七百三>

<七百四>

<七百五>

<七百六>

<七百七>

<七百八>

<七百九>

<八百>

<八百一>

<八百二>

<八百三>

<八百四>

<八百五>

<八百六>

<八百七>

<八百八>

<八百九>

<九百>

<九百一>

<九百二>

<九百三>

<九百四>

<九百五>

<九百六>

<九百七>

<九百八>

<九百九>

<一千>

<一千一>

<一千二>

<一千三>

<一千四>

<一千五>

<一千六>

<一千七>

<一千八>

<一千九>

<二千>

<二千一>

<二千二>

<二千三>

<二千四>

<二千五>

<二千六>

<二千七>

<二千八>

<二千九>

<三千>

<三千一>

<三千二>

<三千三>

<三千四>

<三千五>

<三千六>

<三千七>

<三千八>

<三千九>

<四千>

<四千一>

<四千二>

<四千三>

<四千四>

<四千五>

<四千六>

<四千七>

<四千八>

<四千九>

<五千>

<五千一>

<五千二>

<五千三>

<五千四>

<五千五>

<五千六>

<五千七>

<五千八>

<五千九>

<六千>

<六千一>

<六千二>

<六千三>

<六千四>

<六千五>

<六千六>

<六千七>

<六千八>

<六千九>

<七千>

<七千一>

<七千二>

<七千三>

<七千四>

<七千五>

<七千六>

<七千七>

<七千八>

<七千九>

<八千>

<八千一>

<八千二>

<八千三>

<八千四>

<八千五>

<八千六>

<八千七>

<八千八>

<八千九>

<九千>

<九千一>

<九千二>

<九千三>

<九千四>

<九千五>

<九千六>

<九千七>

<九千八>

<九千九>

<一萬>

<一萬一>

<一萬二>

<一萬三>

<一萬四>

<一萬五>

<一萬六>

<一萬七>

<一萬八>

<一萬九>

<二萬>

<二萬一>

<二萬二>

<二萬三>

<二萬四>

<二萬五>

<二萬六>

<二萬七>

<二萬八>

<二萬九>

<三萬>

<三萬一>

<三萬二>

<三萬三>

<三萬四>

<三萬五>

<三萬六>

<三萬七>

<三萬八>

<三萬九>

<四萬>

<四萬一>

<四萬二>

<四萬三>

<四萬四>

<四萬五>

<四萬六>

<四萬七>

<四萬八>

<四萬九>

<五萬>

<五萬一>

<五萬二>

<五萬三>

<五萬四>

<五萬五>

<五萬六>

<五萬七>

<五萬八>

<五萬九>

<六萬>

<六萬一>

<六萬二>

<六萬三>

<六萬四>

<六萬五>

<六萬六>

<六萬七>

<六萬八>

<六萬九>

<七萬>

<七萬一>

<七萬二>

<七萬三>

<七萬四>

<七萬五>

<七萬六>

<七萬七>

<七萬八>

<七萬九>

<八萬>

<八萬一>

<八萬二>

<八萬三>

<八萬四>

<八萬五>

<八萬六>

<八萬七>

<八萬八>

<八萬九>

<九萬>

<九萬一>

<九萬二>

<九萬三>

<九萬四>

<九萬五>

<九萬六>

<九萬七>

<九萬八>

<九萬九>

<十萬>

<十萬一>

<十萬二>

<十萬三>

<十萬四>

<十萬五>

<十萬六>

<十萬七>

<十萬八>

<十萬九>

<十萬十>

<十萬十一>

<十萬十二>

<十萬十三>

<十萬十四>

<十萬十五>

<十萬十六>

<十萬十七>

<十萬十八>

<十萬十九>

<二十萬>

<二十萬一>

<二十萬二>

<二十萬三>

<二十萬四>

<二十萬五>

<二十萬六>

<二十萬七>

<二十萬八>

<二十萬九>

<三十萬>

<三十萬一>

<三十萬二>

<三十萬三>

<三十萬四>

<三十萬五>

<三十萬六>

<三十萬七>

<三十萬八>

<三十萬九>

<四十萬>

<四十萬一>

<四十萬二>

<四十萬三>

<四十萬四>

<四十萬五>

<四十萬六>

<四十萬七>

<四十萬八>

<四十萬九>

<五十萬>

<五十萬一>

<五十萬二>

<五十萬三>

<五十萬四>

<五十萬五>

<五十萬六>

<五十萬七>

<五十萬八>

<五十萬九>

<六十萬>

<六十萬一>

<六十萬二>

<六十萬三>

<六十萬四>

<六十萬五>

<六十萬六>

<六十萬七>

<六十萬八>

<六十萬九>

<七十萬>

<七十萬一>

<七十萬二>

<七十萬三>

<七十萬四>

<七十萬五>

<七十萬六>

<七十萬七>

<七十萬八>

<七十萬九>

<八十萬>

<八十萬一>

<八十萬二>

<八十萬三>

<八十萬四>

<八十萬五>

<八十萬六>

<八十萬七>

<八十萬八>

<八十萬九>

<九十萬>

<九十萬一>

<九十萬二>

<九十萬三>

<九十萬四>

<九十萬五>

<九十萬六>

<九十萬七>

<九十萬八>

<九十萬九>

<一百萬>

<一百萬一>

<一百萬二>

<一百萬三>

<一百萬四>

<一百萬五>

<一百萬六>

<一百萬七>

<一百萬八>

<一百萬九>

<二百萬>

<二百萬一>

<二百萬二>

<二百萬三>

<二百萬四>

<二百萬五>

<二百萬六>

<二百萬七>

<二百萬八>

<二百萬九>

<三百萬>

<三百萬一>

<三百萬二>

<三百萬三>

<三百萬四>

<三百萬五>

<三百萬六>

<三百萬七>

<三百萬八>

<三百萬九>

<四百萬>

<四百萬一>

<四百萬二>

<四百萬三>

<四百萬四>

<四百萬五>

<四百萬六>

<四百萬七>

<四百萬八>

<四百萬九>

<五百萬>

<五百萬一>

<五百萬二>

<五百萬三>

<五百萬四>

<五百萬五>

<五百萬六>

<五百萬七>

<五百萬八>

<五百萬九>

<六百萬>

<六百萬一>

<六百萬二>

<六百萬三>

<六百萬四>

<六百萬五>

<六百萬六>

<六百萬七>

<六百萬八>

<六百萬九>

<七百萬>

<七百萬一>

<七百萬二>

<七百萬三>

<七百萬四>

<七百萬五>

<七百萬六>

<七百萬七>

<七百萬八>

<七百萬九>

<八百萬>

<八百萬一>

<八百萬二>

<八百萬三>

<八百萬四>

<八百萬五>

<八百萬六>

<八百萬七>

<八百萬八>

<八百萬九>

<九百萬>

<九百萬一>

<九百萬二>

<九百萬三>

<九百萬四>

<九百萬五>

<九百萬六>

<九百萬七>

<九百萬八>

<九百萬九>

<一千萬>

<一千萬一>

<一千萬二>

<一千萬三>

<一千萬四>

<一千萬五>

<一千萬六>

<一千萬七>

<一千萬八>

<一千萬九>

<二千萬>

<二千萬一>

<二千萬二>

<二千萬三>

<二千萬四>

<二千萬五>

<二千萬六>

<二千萬七>

<二千萬八>

<二千萬九>

<三千萬>

<三千萬一>

<三千萬二>

<三千萬三>

<三千萬四>

<三千萬五>

<三千萬六>

<三千萬七>

<三千萬八>

<三千萬九>

<四千萬>

<四千萬一>

<四千萬二>

<四千萬三>

<四千萬四>

<四千萬五>

<四千萬六>

<四千萬七>

<四千萬八>

<四千萬九>

<五千萬>

<五千萬一>

<五千萬二>

<五千萬三>

<五千萬四>

<五千萬五>

<五千萬六>

<五千萬七>

<五千萬八>

<五千萬九>

<六千萬>

<六千萬一>

<六千萬二>

<六千萬三>

<六千萬四>

<六千萬五>

<六千萬六>

<六千萬七>

<六千萬八>

<六千萬九>

<七千萬>

<七千萬一>

<七千萬二>

<七千萬三>

<七千萬四>

<七千萬五>

<七千萬六>

<七千萬七>

<七千萬八>

<七千萬九>

<八千萬>

<八千萬一>

<八千萬二>

<八千萬三>

<八千萬四>

<八千萬五>

<八千萬六>

<八千萬七>

<八千萬八>

<八千萬九>

<九千萬>

<九千萬一>

<九千萬二>

<九千萬三>

<九千萬四>

<九千萬五>

<九千萬六>

<九千萬七>

<九千萬八>

<九千萬九>

<一億>

<一億一>

<一億二>

<一億三>

<一億四>

<一億五>

<一億六>

<一億七>

<一億八>

<一億九>

<二億>

<二億一>

<二億二>

<二億三>

<二億四>

<二億五>

<二億六>

<二億七>

<二億八>

<二億九>

<三億>

<三億一>

<三億二>

<三億三>

<三億四>

<三億五>

<三億六>

<三億七>

<三億八>

<三億九>

<四億>

<四億一>

<四億二>

<四億三>

<四億四>

<四億五>

<四億六>

<四億七>

<四億八>

<四億九>

<五億>

<五億一>

<五億二>

<五億三>

<五億四>

<五億五>

<五億六>

<五億七>

<五億八>

<五億九>

<六億>

<六億一>

<六億二>

<六億三>

<六億四>

<六億五>

<六億六>

<六億七>

<六億八>

<六億九>

<七億>

<七億一>

<七億二>

<七億三>

<七億四>

<七億五>

<七億六>

<七億七>

<七億八>

<七億九>

<八億>

<八億一>

<八億二>

<八億三>

<八億四>

<八億五>

<八億六>

<八億七>

<八億八>

<八億九>

<九億>

<九億一>

<九億二>

<九億三>

<九億四>

<九億五>

<九億六>

<九億七>

<九億八>

<九億九>

<十億>

<十億一>

<十億二>

<十億三>

<十億四>

<十億五>

<十億六>

<十億七>

<十億八>

<十億九>

<二十億>

<二十億一>

<二十億二>

<二十億三>

<二十億四>

<二十億五>

<二十億六>

<二十億七>

<二十億八>

<二十億九>

<三十億>

<三十億一>

<三十億二>

<三十億三>

<三十億四>

<三十億五>

<三十億六>

<三十億七>

<三十億八>

<三十億九>

<四十億>

<四十億一>

<四十億二>

<四十億三>

<四十億四>

<四十億五>

<四十億六>

<四十億七>

<四十億八>

<四十億九>

<五十億>

<五十億一>

<五十億二>

<五十億三>

<五十億四>

<五十億五>

<五十億六>

<五十億七>

<五十億八>

<五十億九>

<六十億>

<六十億一>

<六十億二>

<六十億三>

<六十億四>

<六十億五>

<六十億六>

<六十億七>

<六十億八>

<六十億九>

<七十億>

<七十億一>

<七十億二>

<七十億三>

<七十億四>

<七十億五>

<七十億六>

<七十億七>

<七十億八>

<七十億九>

<八十億>

<八十億一>

<八十億二>

<八十億三>

<八十億四>

<八十億五>

<八十億六>

<八十億七>

<八十億八>

<八十億九>

<九十億>

<九十億一>

<九十億二>

<九十億三>

<九十億四>

<九十億五>

<九十億六>

<九十億七>

<九十億八>

<九十億九>

<一百億>

<一百億一>

<一百億二>

<一百億三>

<一百億四>

<一百億五>

<一百億六>

<一百億七>

<一百億八>

<一百億九>

<二百億>

<二百億一>

<二百億二>

<二百億三>

<二百億四>

<二百億五>

<二百億六>

<二百億七>

<二百億八>

<二百億九>

<三百億>

<三百億一>

<三百億二>

<三百億三>

<三百億四>

<三百億五>

<三百億六>

<三百億七>

<三百億八>

<三百億九>

<四百億>

<四百億一>

<四百億二>

<四百億三>

<四百億四>

<四百億五>

<四百億六>

<四百億七>

<四百億八>

<四百億九>

<五百億>

<五百億一>

<五百億二>

<五百億三>

<五百億四>

<五百億五>

<五百億六>

<五百億七>

<五百億八>

<五百億九>

<六百億>

<六百億一>

<六百億二>

<六百億三>

<六百億四>

<六百億五>

<六百億六>

<六百億七>

<六百億八>

<六百億九>

<七百億>

<七百億一>

<七百億二>

<七百億三>

<七百億四>

<七百億五>

<七百億六>

<七百億七>

<七百億八>

<七百億九>

<八百億>

<八百億一>

<八百億二>

<八百億三>

<八百億四>

<八百億五>

<八百億六>

<八百億七>

<八百億八>

<八百億九>

<九百億>

<九百億一>

<九百億二>

<九百億三>

<九百億四>

<九百億五>

<九百億六>

<九百億七>

<九百億八>

<九百億九>

<一千億>

<一千億一>

<一千億二>

<一千億三>

<一千億四>

<一千億五>

<一千億六>

<一千億七>

<一千億八>

<一千億九>

<二千億>

<二千億一>

<二千億二>

<二千億三>

<二千億四>

<二千億五>

<二千億六>

<二千億七>

<二千億八>

<二千億九>

<三千億>

<三千億一>

<三千億二>

<三千億三>

<三千億四>

<三千億五>

<三千億六>

<三千億七>

<三千億八>

<三千億九>

<四千億>

<四千億一>

<四千億二>

<四千億三>

<四千億四>

<四千億五>

<四千億六>

<四千億七>

<四千億八>

<四千億九>

<五千億>

<五千億一>

<五千億二>

<五千億三>

<五千億四>

<五千億五>

<五千億六>

<五千億七>

<五千億八>

<五千億九>

<六千億>

<六千億一>

<六千億二>

<六千億三>

<六千億四>

<六千億五>

<六千億六>

<六千億七>

<六千億八>

<六千億九>

<七千億>

<七千億一>

<七千億二>

<七千億三>

<七千億四>

<七千億五>

<七千億六>

<七千億七>

<七千億八>

<七千億九>

<八千億>

<八千億一>

<八千億二>

<八千億三>

<八千億四>

<八千億五>

<八千億六>

<八千億七>

<八千億八>

<八千億九>

<九千億>

<九千億一>

<九千億二>

<九千億三>

<九千億四>

<九千億五>

<九千億六>

<九千億七>

<九千億八>

<九千億九>

<一兆>

<一兆一>

<一兆二>

<一兆三>

<一兆四>

<一兆五>

<一兆六>

<一兆七>

<一兆八>

<一兆九>

<二兆>

<二兆一>

<二兆二>

<二兆三>

<二兆四>

<二兆五>

<二兆六>

<二兆七>

<二兆八>

<二兆九>

<三兆>

<三兆一>

<三兆二>

<三兆三>

<三兆四>

<三兆五>

<三兆六>

<三兆七>

<三兆八>

<三兆九>

<四兆>

<四兆一>

<四兆二>

<四兆三>

<四兆四>

<四兆五>

<四兆六>

<四兆七>

<四兆八>

<四兆九>

<五兆>

<五兆一>

<五兆二>

<五兆三>

<五兆四>

<五兆五>

<五兆六>

<五兆七>

<五兆八>

<五兆九>

<六兆>

<六兆一>

<六兆二>

<六兆三>

<六兆四>

<六兆五>

<六兆六>

<六兆七>

<六兆八>

<六兆九>

<七兆>

<七兆一>

<七兆二>

<七兆三>

<七兆四>

<七兆五>

<七兆六>

<七兆七>

<七兆八>

<七兆九>

<八兆>

<八兆一>

<八兆二>

<八兆三>

<八兆四>

<八兆五>

<八兆六>

<八兆七>

<八兆八>

<八兆九>

<九兆>

<九兆一>

<九兆二>

<九兆三>

<九兆四>

<九兆五>

<九兆六>

<九兆七>

<九兆八>

<九兆九>

<一京>

<一京一>

<一京二>

<一京三>

<一京四>

<一京五>

<一京六>

<一京七>

<一京八>

<一京九>

<二京>

<二京一>

<二京二>

<二京三>

<二京四>

<二京五>

<二京六>

<二京七>

<二京八>

<二京九>

<三京>

<三京一>

<三京二>

<三京三>

<三京四>

<三京五>

<三京六>

<三京七>

<三京八>

<三京九>

<四京>

<四京一>

<四京二>

<四京三>

<四京四>

<四京五>

<四京六>

<四京七>

<四京八>

<四京九>

<五京>

<五京一>

<五京二>

<五京三>

<五京四>

<五京五>

<五京六>

<五京七>

<五京八>

<五京九>

<六京>

<六京一>

<六京二>

<六京三>

<六京四>

<六京五>

<六京六>

<六京七>

<六京八>

<六京九>

<七京>

<七京一>

<七京二>

<七京三>

<七京四>

<七京五>

<七京六>

<七京七>

<七京八>

<七京九>

<八京>

<八京一>

<八京二>

<八京三>

<八京四>

<八京五>

<八京六>

<八京七>

<八京八>

<八京九>

<九京>

<九京一>

<九京二>

<九京三>

<九京四>

<九京五>

<九京六>

<九京七>

<九京八>

<九京九>

<十京>

<十京一>

<十京二>

<十京三>

<十京四>

<十京五>

<十京六>

<十京七>

<十京八>

<十京九>

<二十京>

<二十京一>

<二十京二>

<二十京三>

<二十京四>

<二十京五>

<二十京六>

<二十京七>

<二十京八>

<二十京九>

<三十京>

<三十京一>

<三十京二>

<三十京三>

<三十京四>

<三十京五>

<三十京六>

<三十京七>

<三十京八>

<三十京九>

<四十京>

<四十京一>

<四十京二>

<四十京三>

<四十京四>

<四十京五>

<四十京六>

<四十京七>

<四十京八>

<四十京九>

<五十京>

<五十京一>

<五十京二>

<五十京三>

<五十京四>

<五十京五>

<五十京六>

<五十京七>

<五十京八>

<五十京九>

<六十京>

<六十京一>

<六十京二>

<六十京三>

<六十京四>

<六十京五>

<六十京六>

<六十京七>

<六十京八>

<六十京九>

<七十京>

<七十京一>

<七十京二>

<七十京三>

<七十京四>

<七十京五>

<七十京六>

<七十京七>

<七十京八>

<七十京九>

<八十京>

<八十京一>

<八十京二>

<八十京三>

<八十京四>

<八十京五>

<八十京六>

<八十京七>

<八十京八>

<八十京九>

<九十京>

<九十京一>

<九十京二>

<九十京三>

<九十京四>

<九十京五>

<九十京六>

<九十京七>

<九十京八>

<九十京九>

<一百京>

<一百京一>

<一百京二>

<一百京三>

<一百京四>

<一百京五>

<一百京六>

<一百京七>

<一百京八>

<一百京九>

<二百京>

<二百京一>

<二百京二>

<二百京三>

<二百京四>

<二百京五>

<二百京六>

<二百京七>

<二百京八>

<二百京九>

<三百京>

<三百京一>

<三百京二>

<三百京三>

<三百京四>

<三百京五>

<三百京六>

<三百京七>

<三百京八>

<三百京九>

<四百京>

<四百京一>

<四百京二>

<四百京三>

<四百京四>

<四百京五>

<四百京六>

<四百京七>

<四百京八>

<四百京九>

<五百京>

<五百京一>

<五百京二>

<五百京三>

<五百京四>

<五百京五>

<五百京六>

<五百京七>

<五百京八>

<五百京九>

<六百京>

<六百京一>

<六百京二>

<六百京三>

<六百京四>

<六百京五>

<六百京六>

<六百京七>

<六百京八>

<六百京九>

<七百京>

<七百京一>

<七百京二>

<七百京三>

<七百京四>

<七百京五>

<七百京六>

<七百京七>

<七百京八>

<七百京九>

<八百京>

<八百京一>

<八百京二>

<八百京三>

<八百京四>

<八百京五>

<八百京六>

<八百京七>

<八百京八>

<八百京九>

<九百京>

<九百京一>

<九百京二>

<九百京三>

<九百京四>

<九百京五>

<九百京六>

<九百京七>

<九百京八>

<九百京九>

<一千京>

<一千京一>

<一千京二>

<一千京三>

<一千京四>

<一千京五>

<一千京六>

<一千京七>

<一千京八>

<一千京九>

<二千京>

<二千京一>

<二千京二>

<二千京三>

<二千京四>

<二千京五>

<二千京六>

<二千京七>

<二千京八>

<二千京九>

<三千京>

<三千京一>

<三千京二>

<三千京三>

<三千京四>

<三千京五>

<三千京六>

<三千京七>

<三千京八>

<三千京九>

<四千京>

<四千京一>

<四千京二>

<四千京三>

<四千京四>

<四千京五>

<四千京六>

<四千京七>

<四千京八>

<四千京九>

<五千京>

<五千京一>

<五千京二>

<五千京三>

<五千京四>

<五千京五>

<五千京六>

<五千京七>

<五千京八>

<五千京九>

<六千京>

<六千京一>

<六千京二>

<六千京三>

<六千京四>

<六千京五>

<六千京六>

<六千京七>

<六千京八>

<六千京九>

<七千京>

<七千京一>

<七千京二>

<七千京三>

<七千京四>

<七千京五>

<七千京六>

<七千京七>

<七千京八>

<七千京九>

<八千京>

<八千京一>

<八千京二>

<八千京三>

<八千京四>

<八千京五>

<八千京六>

<八千京七>

<八千京八>

<八千京九>

<九千京>

<九千京一>

<九千京二>

<九千京三>

<九千京四>

<九千京五>

<九千京六>

<九千京七>

<九千京八>

<九千京九>

<一萬京>

<一萬京一>

<一萬京二>

<一萬京三>

<一萬京四>

<一萬京五>

<一萬京六>

<一萬京七>

<一萬京八>

<一萬京九>

<二萬京>

<二萬京一>

<二萬京二>

<二萬京三>

<二萬京四>

<二萬京五>

<二萬京六>

<二萬京七>

<二萬京八>

<二萬京九>

<三萬京>

<三萬京一>

<三萬京二>

<三萬京三>

<三萬京四>

<三萬京五>

<三萬京六>

<三萬京七>

<三萬京八>

<三萬京九>

<四萬京>

<四萬京一>

<四萬京二>

<四萬京三>

<四萬京四>

<四萬京五>

<四萬京六>

<四萬京七>

<四萬京八>

<四萬京九>

<五萬京>

<五萬京一>

<五萬京二>

<五萬京三>

<五萬京四>

<五萬京五>

<五萬京六>

<五萬京七>

<五萬京八>

<五萬京九>

<六萬京>

<六萬京一>

<六萬京二>

<六萬京三>

<六萬京四>

<六萬京五>

<六萬京六>

<六萬京七>

<六萬京八>

<六萬京九>

<七萬京>

<七萬京一>

<七萬京二>

<七萬京三>

<七萬京四>

<七萬京五>

<七萬京六>

<七萬京七>

<七萬京八>

<七萬京九>

<八萬京>

<八萬京一>

<八萬京二>

<八萬京三>

<八萬京四>

<八萬京五>

<八萬京六>

<八萬京七>

<八萬京八>

<八萬京九>

<九萬京>

<九萬京一>

<九萬京二>

<九萬京三>

<九萬京四>

<九萬京五>

<九萬京六>

<九萬京七>

<九萬京八>

<九萬京九>

<十萬京>

<十萬京一>

<十萬京二>

<十萬京三>

<十萬京四>

<十萬京五>

<十萬京六>

<十萬京七>

<十萬京八>

<十萬京九>

<二十萬京>

<二十萬京一>

<二十萬京二>

<二十萬京三>

<二十萬京四>

<二十萬京五>

<二十萬京六>

<二十萬京七>

<二十萬京八>

<二十萬京九>

<三十萬京>

<三十萬京一>

<三十萬京二>

<三十萬京三>

<三十萬京四>

<三十萬京五>

<三十萬京六>

<三十萬京七>

<三十萬京八>

<三十萬京九>

<四十萬京>

<四十萬京一>

<四十萬京二>

<四十萬京三>

<四十萬京四>

<四十萬京五>

<四十萬京六>

<四十萬京七>

<四十萬京八>

<四十萬京九>

<五十萬京>

<五十萬京一>

<五十萬京二>

<五十萬京三>

<五十萬京四>

<五十萬京五>

<五十萬京六>

<五十萬京七>

<五十萬京八>

<五十萬京九>

<六十萬京>

<六十萬京一>

<六十萬京二>

<六十萬京三>

<六十萬京四>

<六十萬京五>

<六十萬京六>

<六十萬京七>

<六十萬京八>

<六十萬京九>

<七十萬京>

<七十萬京一>

<七十萬京二>

<七十萬京三>

<七十萬京四>

<七十萬京五>

<七十萬京六>

<七十萬京七>

<七十萬京八>

<七十萬京九>

<八十萬京>

<八十萬京一>

<八十萬京二>

<八十萬京三>

<八十萬京四>

<八十萬京五>

<八十萬京六>

<八十萬京七>

<八十萬京八>

<八十萬京九>

<九十萬京>

<九十萬京一>

<九十萬京二>

<九十萬京三>

<九十萬京四>

<九十萬京五>

<九十萬京六>

<九十萬京七>

<九十萬京八>

<九十萬京九>

<一百萬京>

<一百萬京一>

<一百萬京二>

<一百萬京三>

<一百萬京四>

<一百萬京五>

<一百萬京六>

<一百萬京七>

<一百萬京八>

<一百萬京九>

<二百萬京>

<二百萬京一>

<二百萬京二>

<二百萬京三>

<二百萬京四>

<二百萬京五>

<二百萬京六>

<二百萬京七>

<二百萬京八>

<二百萬京九>

<三百萬京>

<三百萬京一>

<三百萬京二>

<三百萬京三>

<三百萬京四>

<三百萬京五>

<三百萬京六>

<三百萬京七>

<三百萬京八>

<三百萬京九>

<四百萬京>

<四百萬京一>

<四百萬京二>

<四百萬京三>

<四百萬京四>

<四百萬京五>

<四百萬京六>

<四百萬京七>

<四百萬京八>

<四百萬京九>

<五百萬京>

<五百萬京一>

<五百萬京二>

<五百萬京三>

<五百萬京四>

<五百萬京五>

<五百萬京六>

<五百萬京七>

<五百萬京八>

<五百萬京九>

<六百萬京>

<六百萬京一>

<六百萬京二>

<六百萬京三>

<六百萬京四>

<六百萬京五>

<六百萬京六>

<六百萬京七>

<六百萬京八>

<六百萬京九>

<七百萬京>

<七百萬京一>

<七百萬京二>

<七百萬京三>

<七百萬京四>

<七百萬京五>

<七百萬京六>

<七百萬京七>

<七百萬京八>

<七百萬京九>

<八百萬京>

<八百萬京一>

<八百萬京二>

<八百萬京三>

<八百萬京四>

<八百萬京五>

<八百萬京六>

<八百萬京七>

<八百萬京八>

<八百萬京九>

<九百萬京>

<九百萬京一>

<九百萬京二>

<九百萬京三>

<九百萬京四>

<九百萬京五>

<九百萬京六>

<九百萬京七>

<九百萬京八>

<九百萬京九>

<一千萬京>

<一千萬京一>

<一千萬京二>

<一千萬京三>

<一千萬京四>

<一千萬京五>

<一千萬京六>

<一千萬京七>

<一千萬京八>

<一千萬京九>

<二千萬京>

<二千萬京一>

<二千萬京二>

<二千萬京三>

<二千萬京四>

<二千萬京五>

<二千萬京六>

<二千萬京七>

<二千萬京八>

<二千萬京九>

<三千萬京>

<三千萬京一>

<三千萬京二>

<三千萬京三>

<三千萬京四>

<三千萬京五>

<三千萬京六>

<三千萬京七>

<三千萬京八>

<三千萬京九>

<四千萬京>

<四千萬京一>

<四千萬京二>

<四千萬京三>

<四千萬京四>

<四千萬京五>

<四千萬京六>

<四千萬京七>

<四千萬京八>

<四千萬京九>

<五千萬京>

<五千萬京一>

<五千萬京二>

<五千萬京三>

<五千萬京四>

<五千萬京五>

<五千萬京六>

<五千萬京七>

<五千萬京八>

<五千萬京九>

<六千萬京>

<六千萬京一>

<六千萬京二>

<六千萬京三>

<六千萬京四>

<六千萬京五>

<六千萬京六>

<六千萬京七>

<六千萬京八>

<六千萬京九>

<七千萬京>

<七千萬京一>

<七千萬京二>

<七千萬京三>

<七千萬京四>

<七千萬京五>

<七千萬京六>

<七千萬京七>

<七千萬京八>

<七千萬京九>

<八千萬京>

<八千萬京一>

<八千萬京二>

<八千萬京三>

<八千萬京四>

<八千萬京五>

<八千萬京六>

<八千萬京七>

<八千萬京八>

<八千萬京九>

<九千萬京>

<九千萬京一>

<九千萬京二>

<九千萬京三>

<九千萬京四>

<九千萬京五>

<九千萬京六>

<九千萬京七>

<九千萬京八>

<九千萬京九>

<一億京>

<一億京一>

<一億京二>

<一億京三>

<一億京四>

<一億京五>

<一億京六>

<一億京七>

<一億京八>

<一億京九>

<二億京>

<二億京一>

<二億京二>

<二億京三>

<二億京四>

<二億京五>

<二億京六>

<二億京七>

<二億京八>

<二億京九>

<三億京>

<三億京一>

<三億京二>

<三億京三>

<三億京四>

<三億京五>

<三億京六>

<三億京七>

<三億京八>

<三億京九>

<四億京>

<四億京一>

<四億京二>

<四億京三>

<四億京四>

<四億京五>

<四億京六>

<四億京七>

<四億京八>

<四億京九>

<五億京>

<五億京一>

<五億京二>

<五億京三>

<五億京四>

<五億京五>

<五億京六>

<五億京七>

<五億京八>

<五億京九>

<六億京>

<六億京一>

<六億京二>

<六億京三>

<六億京四>

<六億京五>

<六億京六>

<六億京七>

<六億京八>

<六億京九>

<七億京>

<七億京一>

<七億京二>

<七億京三>

<七億京四>

<七億京五>

<七億京六>

<七億京七>

<七億京八>

<七億京九>

<八億京>

<八億京一>

<八億京二>

<八億京三>

<八億京四>

<八億京五>

<八億京六>

<八億京七>

<八億京八>

<八億京九>

<九億京>

<九億京一>

<九億京二>

<九億京三>

<九億京四>

<九億京五>

<九億京六>

<九億京七>

<九億京八>

<九億京九>

<十億京>

<十億京一>

<十億京二>

<十億京三>

<十億京四>

<十億京五>

<十億京六>

<十億京七>

<十億京八>

<十億京九>

<二十億京>

<二十億京一>

<二十億京二>

<二十億京三>

<二十億京四>

<二十億京五>

<二十億京六>

<二十億京七>

<二十億京八>

<二十億京九>

<三十億京>

<三十億京一>

<三十億京二>

<三十億京三>

<三十億京四>

<三十億京五>

<三十億京六>

<三十億京七>

<三十億京八>

<三十億京九>

<四十億京>

<四十億京一>

<四十億京二>

<四十億京三>

<四十億京四>

<四

高麗佛書展示의意義

第二回韓國大藏會를마치고

千惠鳳

佛教文化研究所에서는 昨年부터 佛誕記念行事의 하나로서 韓國大藏會를 開催하여왔다 第一回는 高麗寫經을 展示했고 이어 今年에는 高麗佛書를展示하여 六·二五動乱以後 그行方이 모연해진高麗때의 佛教文化財에對한 所在를다시금밝혀주었다 勿論이것이 그全部는아니겠지만 秘藏된 貴重本의出品을 快히承諾해주신여러 先生님들의 厚意로 애당초 뜻했던것보다는 많은 板本을展示하였다 이번展示會의 심부름을 맡아본 한사람으로서貴重本을 出品하여주신諸位께 于先 深甚한感謝를드리는 바이다

佛教文化財保存등에 좋은契機

秘藏된 稀貴本들 書誌學研究에도 寄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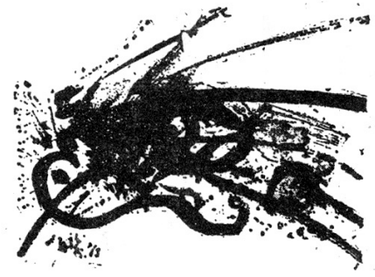
學界에 처음으로 紹介된것도

韓國唯一의 佛教宗團大學에서는 年例 主要行事의하나로 이번에開催한 高麗佛書展示會를 첫째 우리 國寶的인 佛教文化財를 保存하고 及 또는 傳承시키는데 우리大學이 先驅的인구실을하고있는 點을 높이 평가하고 그 自由로운 硏究와 敎授 및 學生에게 이 貴重한 資料를 提供하는 것이 우리 韓國 文化面에있어서의 打擊은 致命的인 것이었다 兵火로因한 焚書·略奪로因한紛失로 오늘날 高麗板本을 연구하는데 있어 그 아쉬운 것이 우리 六·二五動乱以後는 이미 알려져 있는 것마저 行方이 묘연한 것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展示會를 통하여 三種이나 그 所在를 밝히게되었고 目錄으로서 널리 國內外의 學界에 紹介할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었던것이다 그 中 가장 오랜것은 八百五十餘年前에 刊行된 『注仁王護國經』 (趙明基敎授藏)이다 四子인 高麗文宗의 義天의 續藏에 編入되었던 것으로 松廣寺의 涅槃經等 數種과 더부러 우리나라 文化財인 古의國寶的 價値를 보여주는 것이다 高麗高宗五年(1218)刊의 『梵書총持集』 (閔泳珪敎授藏)과 高麗高宗二十七年(1240)刊인 『妙法蓮華經』 (趙明基敎授藏)을 비롯하여 圓覺類解, 金剛般若經疏論 (以上 東大圖書館藏) 白雲和尚語錄 (서울大圖書館藏) 懶翁和尚語錄 (懶翁和尚歌頌 (趙明基敎授藏) 그리고 南宗의 浙本을 방불케하는 佛祖三經 (趙明基敎授藏) 等이 다같이 世上에단 하나 밖에없는 原本들이다 이것들은 그 實體 및 寬厚한 그 性格과 端正하고 刀刻이 精巧하여 高麗板本의 代表하는 白眉인 佛書들이 뿐만아니라 古溪 六世인 圓鑑國師 (一二二六—一二九二) 의 著述인 點에서도 麗名僧의 著述이 評價되거니와 그價値가 높이 認定되지 않은 것이 紹介 特히 그러한 現在로서는 唯一한 稀貴書이며 日本의學界까지 많은 關心을 갖게 할것은 事實일것이다 梵書총持集은 高麗僧惠諶 (一三二〇—一三七六) 의 發願에依해서 이루어진 佛家常用의 眞言集이다 漢字로된 眞言題目은 袖珍本으로서 梵字로된 眞言內容은 貴重本이다 아마高麗의 僧侶는 오늘날 一般人이 英語를 잘하듯이 梵語를 곧잘 使用하였으리라는것을 能히 짐작할 수있는 資料이기도 하다 이번에 새로히 發見된 點을 들 수있는 것은 이번 展示會를 한층 빛나게 하고 많은 佛教學者들의 耳目을 集中케 한것은 『海東曹溪 부庵和尚雜著』 와 『梵書총持集』 (以上 閔泳珪敎授藏) 이다 高麗板本의

非是的韓國的

—文學的 새 方向을 찾아서—

……〈上〉…… 吳學榮



論壇

最近 文學論에 韓國的인것에대한 是非論이 沸騰하고있음을 보게되는데 이제와서 무슨커다란 理由가있어 새삼「韓國的인것」에 관심을 갖게되었는지 알수없다。韓國的이라는 괴상한 문제가 제법時代的 潮流에편승해서 크게 論難되고 있는것만은 틀림이없다。이問題에 관해서는 特히 白鐵 鄭泰鎬 柳宗鎬等 諸氏가 신랄한 의견교환을하고있다。

여기에대해서 나는 韓國的이라는 문제에 관심을가졌다기보다는 韓國的 原心論에 찬가지겠으나 文學에는 크게영향되어 西歐의 文學思潮가 커다란 反應을 야기시켜놓고있음은 사실이다。그만두고 近來에 論議되고있는 實存主義、앙띠로망、비트 극히 앵그리·영맨等 지극히 다채로운 面이없지않다 이새로운 사조들은 일차 한번씩 實驗期를 거쳐두고 충분한 研究의 素地를 마련하고있다。새로운 사조는 밖이드 흑은 新사조는 한 民族文化를 形成하고 外國文化에 均리고 研究검토해서 취할 必要는있으나 사선택할 文化藝術을 없어 民族的精神이나 固有의 文化形式이 西歐化의 과정을 밟고있는한편 西歐의새로운思潮가 너무나많이 들어와서 民族的固有의 文化를 침식하거나 變質變形해놓는 실정에이르렀다。이러한 현상은 다마 어느部分이고간에 신랄한 의견교환을하고있다。

韓國的인것에대한 是非論이 沸騰하고있음을 보게되는데 이제와서 무슨커다란 理由가있어 새삼「韓國的인것」에 관심을 갖게되었는지 알수없다。韓國的이라는 괴상한 이제껏 문제가 제법時代的 潮流에편승해서 論難되고 있는것만은 틀림이없다。이問題에 관해서는 特히 白鐵 鄭泰鎬 柳宗鎬等 諸氏가 신랄한 의견교환을하고있다。

여기에대해서 나는 韓國的이라는 문제에 관심을가졌다기보다는 韓國的 原心論에 찬가지겠으나 文學에는 크게영향되어 西歐의 文學思潮가 커다란 反應을 야기시켜놓고있음은 사실이다。그만두고 近來에 論議되고있는 實存主義、앙띠로망、비트 극히 앵그리·영맨等 지극히 다채로운 面이없지않다 이새로운 사조들은 일차 한번씩 實驗期를 거쳐두고 충분한 研究의 素地를 마련하고있다。새로운 사조는 밖이드 흑은 新사조는 한 民族文化를 形成하고 外國文化에 均리고 研究검토해서 취할 必要는있으나 사선택할 文化藝術을 없어 民族的精神이나 固有의 文化形式이 西歐化의 과정을 밟고있는한편 西歐의새로운思潮가 너무나많이 들어와서 民族的固有의 文化를 침식하거나 變質變形해놓는 실정에이르렀다。이러한 현상은 다마 어느部分이고간에 신랄한 의견교환을하고있다。

提示한 韓國的精神

意味論과 可能論으로 意見 紛紛하고

우리 固有性 發掘 必要

—南滿山城의「美」少女에게—

李 慈

美、그것은 雲霧로 生에서부터 너와 내가 맺어온 因緣이었을까 어째서 그처음의瞬間부터 마치宿命과도 같은 찬란한 豫感에 가슴을떨어야 했던가 그렇게 쉴사리열리지 않는 가슴의門에서는 빗장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던 것인가 저녁 古宮城壁아래서 푸른 달빛에 홀든밤은 눈빛을 한없이드러나보다가 터질듯한 슬픔에 손을 흔들고달려가던 너의 뒷모습 그밤以後 여영잠이 오지않고 浮雲처럼흘러 가는 나의 인생 생각나는 너의얼굴을…이것을 무엇이라 이를할 것인가 美、그리고 돌아간 네가 무언가 안개와 바람속에선듯 갈피를 잡지못하고 끝내떠온 鄕愁를안고 지향없는길 을떠났다